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8호

체육시민연대 논평

성평등 고민한 도쿄올림픽...조롱투스와 성 편향적 올림픽 보도

서울특별시체육회 블로그 베러 투모로우

스포츠 정신의 품격은 금메달보다 무겁다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문화와 삶

『국내 스포츠와 성평등』

김연경부터 지소연까지...스포츠의 판도를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

달랑 2명...여성 아나운서 많아도 '스포츠캐스터' 없는 이유

올림픽정신

복길 자유기고가<아무튼 예능> 저자

도쿄올림픽

성적보다 '투지'에 박수...변화하는 한국 스포츠

박구인 국민일보 기자

"양궁말고도 많네"...현대차그룹, 스포츠 발전의 '숨은 조력자'

신건웅 뉴스1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도쿄올림픽 장식한 스포츠 정신

류호 한국일보 기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성평등 고민한 도쿄올림픽 ... 조롱투스와 성 편향적 올림픽 보도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의 개최 의지로 개최된 [Tokyo 2020 Olympic](#) 일정이 끝났다.

올림픽은 스포츠문화유산이자 전 지구촌의 축제이다. 그러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 개최를 진행하면서 이번 올림픽은 정치적 도구의 산물임을 보여주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러한 결정은 무거운 역사의 결과로 남을 것이다.

[Tokyo 2020 Olympic](#) 참가선수들의 경기는 사회적 공황상태인 국민을 위로했다.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선수들의 활약을 통찰하고 분석하며 증명한 언론매체는 올림픽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국민에게 회자되며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위원회는 '성평등의 가치와 맥을 같이'하기 위해 개최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1로 맞춰 선서자를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다.

성평등 올림픽을 고민한 이번 올림픽에서 독일 여자체조대표팀 선수들의 유니폼은 여성운동선수들의 성 편향적 표현에 대한 대항으로 신선한 시선을 끌었다.

이때, 운동 종목과 경기결과에 따른 상황을 보도한 국내 언론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 찬물을 끼얹어”, “고마워요 마린”, “꽃미남”, “얼음공주”, “여우같다”, “혼혈 럭비 전도사” 등의 차별적 조롱투스 자막과 성 편향적 수식어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맞았다.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많은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 헌장에 제시된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의 '4.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의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무의식 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이거나 차별적인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땀과 열정으로 고된 훈련을 견뎌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통해 성숙한 삶을 이루고 존중받기를 원할 것이다. 언론은 그들의 노력에 감동하고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인권과 성평등 인식 개선과 깊은 성찰에 노력을 기울이며,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 정신의 품격은 금메달보다 무겁다

올림픽 정신과 인권의 관계

코로나19로 1년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최됐다. 이번 도쿄올림픽이 경기 결과뿐 아니라 올림픽 정신과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올림픽 정신은 모든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글 · 홍덕기



근대 올림픽의 역사: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의 수단

근대 올림픽은 고대 아테네올림픽 정신인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역대 올림픽은 종종 강대국이 자신의 위상을 알리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전시장이 되어왔다. 이는 국가나 민족을 단위로 한 집단적 신념을 최고 가치로 지향하고 개인의 안전과 행복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이다. 당시 히틀러는 올림픽을 통해 나치즘을 알리고 제2차세계대전을 준비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자신을 '전범 국가'가 아닌 '패전 국가'로 홍보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은 당시 서구와 동구 국가들의 체제 대결의 장이었다. 또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를 드러냈다.

근대 올림픽의 역사에서 지나친 상업화 역시 또 다른 문제다. 지나친 상업화와 과도한 경쟁은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양극화와 선수의 약물복용 등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기도 한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올림픽 개최의 이면에는 막대한 이익 창출이 있다.

다음 장 계속

올림픽의 5대 수입원은 방송 중계권, TOP 프로그램(The Olympic Partner Program), 라이선싱 사업, 티켓 판매, 스폰서십으로 그 액수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미국 NBC방송사는 2014-2020 동·하계 올림픽의 자국 내 독점 중계 비용으로 약 43억 8,200만 달러(원화 가치로 2021년 7월 기준 약 5조 568억 원)을 지불했다.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IOC에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지 못한 이유다.

올림픽 정신의 본질

근대 올림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림픽 정신의 본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IOC에서 제정한 올림픽 헌장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올림피즘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증진해 조화로운 인류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4조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조 '올림픽 운동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6조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 27조 'IOC는 스포츠에서 차별 대우와 폭력 행위에 저항하는 조치를 취한다', 끝으로 57조는 'IOC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어떤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올림픽 헌장은 메달 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전반에 걸쳐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 올림픽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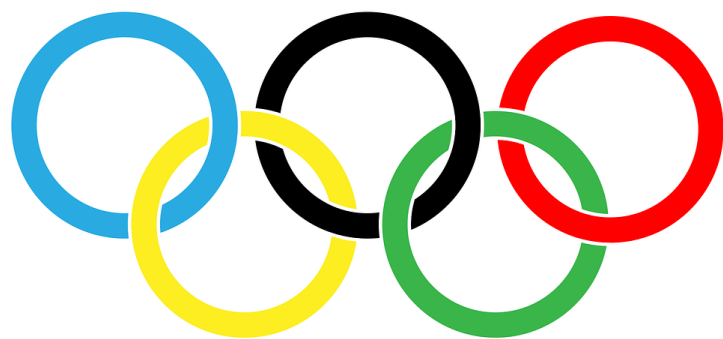
인권 친화적 올림픽은 메달 순위가 곧 국력이자 스포츠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이 4회 연속 올림픽 종합 순위 10위를 달성한 이면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간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온 냉혹한 현실이 있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한 국가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 아닌 인간의 행복이 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은 GDP 순으로는 세계 9위이지만 자살률, 노인 빈곤율, 산업재해 사망률 등에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높은 GDP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다. 우리의 스포츠 분야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에 주목해야 한다.

그 어떤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도 선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다. 올림픽 금메달로 스포츠 강국을 자처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 이 글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서울스포츠> 2021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올림픽정신



복길 자유기고가
<아무튼 예능> 저자
2021.08.05

올림픽 배구 한·일전이 열린 밤에 나는 밖에 있었다. 휴대폰으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경기 결과를 확인했다. 이겼구나. 택시를 타자마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봤어?” 한껏 상기된 기운으로 건네는 친구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나는 마스크 속으로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었다. “못 봤어. 이겼다며? 이겼으면 됐지.” 기운 없는 내 대답이 미안했다.

접전 끝에 5세트. 박정아의 영리한 블로킹과 오지영의 처절한 디깅 같은 것을 생생하게 중계하느라 친구의 숨이 가빴다. 12 대 14 매치포인트, 14 대 14 듀스, 15 대 14 역전, 다시 매치포인트. 연속 4득점 극적인 승리. “이 경기를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걸? 꼭 다시 봐!” 통화가 일방적으로 끝났다. 이제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한·일전 만큼 다이내믹했던 오늘 하루를 늘어놓을 차례였는데.

택시에서 내려 곧장 편의점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타민 음료 한 병을 마시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그러자 애써 외면하고 있던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은 일을 관두겠다는 생각을 한 날이었고 동시에 완전히 잊고 있던 대출금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다시 그 돈을 갚기 위해 몸의 빛을 내는 일은 이렇게 반복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수하며 사는 이 굴레가 그날 나를 한없이 무너뜨렸다.

“다음 파리(올림픽) 때는 1차부터 1등 무기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아쉽게 메달을 놓친 역도 국가대표 김수현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울컥했다. 이를 물고 말하는 저 ‘오기’가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나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내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체력 다음엔 정신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마법 같은 단어는 잦은 출장과 철야마저 거뜬히 버티게 해줬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휴대전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이다. ‘자동완성 기능’에 저장될 만큼 지겹게 뱉은 말은 온몸에 퍼진 염증이 되었다. 안과를 가고, 피부과를 가고, 내과를 갔다. 눈꺼풀엔 안연고를 바르고, 몸에는 스테로이드 로션을 바른다. 속이 쓰리면 위장약을 먹고, 밥을 먹고 나선 소화제를 먹는다. 두통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 놓은 알약은 찬장에 가득이다. 내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위험신호일 뿐이니, 반드시 검진을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의사들의 엄중한 충고도 속절없이 쌓이기만 했다.

“내가 무언가 하나 해내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기보배 선수의 해설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났다.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파트의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가 시스템을 포맷시키는 대형 사고를 쳤다. 화장실에서 펄펄 울고 있는 나에게 화를 누그러뜨린 사수가 다가왔다. 책임감의 크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은 책임감이 아니라 부담이고 그건 결국 모두를 다치게 할 거라고. 내 어깨를 다독이는 그 손이 무섭고 다정했다.

시몬 바일스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몸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김연경의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가 공존하는 이번 올림픽은 삶을 하나의 태도로 일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든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가장 큰 대회에서 보여준 위대한 순간들에 의지해 나는 숨을 고르며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에 ‘죄송하지만 일정이 바빠 어려울 것 같다’는 답신을 보냈다. 처음 해본 거절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저녁 한 끼 해요!’ 여유를 찾으면 내가 저녁을 사야지. 다짐했다. 2021년에 새롭게 정의된 ‘올림픽 정신’. 나를 이렇게 고무시켰다.

자료 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8050300125&fbclid=IwAR1OXTimFUrwJm7KTeZnfLJRzPmmUw6Gk-JEjLTn87LfGrrLMYFzRH4UYWs#c2b

성적보다 '투지'에 박수... 변화하는 한국 스포츠

올림픽 무대에서 성적은 그리 중요치 않았다. 수년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준비한 선수들은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를 함께 즐기고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다. 선수들의 도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한계를 딛고 끝까지 투지를 보여준 선수들에게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다만 올림픽에 임하는 태도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들에게는 싸늘한 비난이 쏟아졌다.

2020 도쿄올림픽이 8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선 유독 4위에 오른 한국 선수나 팀들이 많았다. 총 12개 종목에서 감동을 안겨준 4위가 나왔다.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여자 배구대표팀이 대표적이다. 한국 여자배구는 대회 마지막 날 동메달 결정전 패배로 4위가 확정됐다. 그러나 마지막 올림픽 출전을 알렸던 '주장' 김연경을 중심으로 뚝뚝 뭉친 대표팀에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던 김연경의 외침은 대표팀 선수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전을 이어온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도 박수가 쏟아졌다.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한국 신기록과 함께 4위에 올랐다. 다이빙의 우하람도 남자 스프링보드 3m에서 4위에 올랐지만 볼모지에서 새 역사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역도 여자 87kg 이상급과 남자 67kg급 4위에 오른 이선미와 한명목도 '포스트 장미란 시대'를 열 주자들로 주목받았다.

진한 동료애를 보여준 선수들도 큰 감동을 남겼다. 근대 5종의 정진화는 동메달을 딴 전용태에 이어 결승선을 통과한 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이소희-신승찬 조는 김소영-공희용 조에게 져 4위에 올랐지만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보여줬다

양궁 펜싱 등 올림픽 인기 종목에서도 성적보다는 선수들의 태도가 더 부각됐다. 고교생 궁사 김제덕은 '파이팅' 외침과 함께 선보인 투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양궁 3관왕 안산도 외적 흔들림 없이 차분한 플레이로 주목을 받았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4명의 선수가 끈끈한 팀워크로 일궈낸 금메달이어서 더욱 빛을 발했다.

패자의 품격도 빛났다. 여자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다빈은 상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남자 유도 60kg급 조구함은 결승에서 아쉽게 졌지만 상대 선수의 팔을 번쩍 들어 올려주며 승리를 축하해줬다.

국민들의 눈에 아쉬움을 남긴 장면도 있었다. 축구대표팀 이동경은 경기 패배 후 상대 선수의 악수를 거부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야구대표팀 강백호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더그아웃에 몸을 기댄 채 껌을 씹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혀 지적을 받았다.

박구인 기자(captain@kmib.co.kr)

“양궁 말고도 많네” ...

현대차그룹, 스포츠 발전의 ‘숨은 조력자’

'2020 도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차지하며 신화를 쓴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뒤에는 37년간 대한민국 양궁을 지원한 현대차그룹이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올해 양궁협회장에 재선임된 정의선 회장까지 양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의 스포츠 후원은 양궁만이 아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양궁을 비롯해 축구와 테니스, 골프, 모터스포츠 등을 후원하고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쓴 양궁의 경우, 1985년 대한양궁협회를 후원하며 인연을 맺었다. 체육단체 최초로 스포츠의 과학화를 추진했으며, 최고 수준의 장비 지원으로 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과 현대제철 남자양궁단은 한국 양궁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50여 개국이 가입된 WAF(세계양궁협회)가 개최하는 양궁월드컵의 타이틀 스폰서이기도 하다.

1999년부터는 세계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과 손을 잡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현대자동차가 공식 후원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기아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2022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UEFA 유로파 리그에는 기아가 자동차 부문 공식 파트너로서 2021년까지 스폰서십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회사답게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도 201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WRC 참가 6년 만에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또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원메이크 레이스인 '현대 아반떼컵 시리즈'를 개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전의 기본기와 즐거움을 알려주는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기아는 2002년부터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 공식 스폰서로 나섰다.

특히 2004년 부상으로 주춤하던 라파엘 나달을 후원하며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나달은 독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메르세데스컵에서 우승한 뒤 부상인 벤츠 스포츠카를 받고는 "기아차는 아니지만 좋은 차"라며 기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2017년부터 미국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을 후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골프 대회 중 하나인 '스코티시 오픈'도 공식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스코티시 오픈은 오는 2022년 대회부터 공식 대회명이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2011년부터 미국 PGA 후원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5년부터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인 NFL의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익스트림 스포츠 크래쉬드 아이스를 후원한다. 기아는 미국 프로농구리그인 NBA와 한국프로야구협회(KBO)를 후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며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현대차 판매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져 윈-윈(Win-Win) 효과"라고 말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도쿄올림픽 장식한 스포츠 정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0 도쿄올림픽이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안전 문제, 외교 논란이 겹치며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빗발치는 등 출발부터 불안한 올림픽이었다.

그러나 5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무대였다. 대신 선수들은 17일 동안 국민을 웃고 울리며 감동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패배에 멋지게 승복한 세계 각국 선수들이 보여준 매너를 정리해 봤다.

따뜻한 매너로 사람들 챙긴 '브레드 언니' 김연경

국제배구연맹이 '10억 명 중 한 명 정도 나올 선수'라고 극찬한 배구 여제 김연경은 경기를 땀 때마다 집중 조명을 받았다. 별명 '식빵 언니'는 이제 '브레드 언니'로 전 세계에 뽐어나갔다.

김연경은 경기력은 물론 매너에서도 최고 선수다운 면모를 보였다.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배구 8강전 터키와의 경기에서 하미드 알루시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이 계속되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레드카드를 받았지만, 자칫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총대를 멘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김연경은 월드클래스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했다. 그는 경기 운영진석으로 다가가 알루시 심판에게 악수를 건넸다. 당시 자신이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었고, 두 사람은 가벼운 장난을 치며 미소를 지었다.

김연경의 매너는 경기장 밖에서 더욱 빛났다. 그는 독자 도시락 제공에 대한 일본의 트집에 시달려야 했던 급식 지원센터 영양사들도 살뜰히 챙겼다. 한정숙 급식 지원센터 영양사는 지난달 22일 지원센터 현장을 공개한 MBN유튜브 채널 온마이크 인터뷰에서 김연경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연경이 한 영양사에게 '저희 이제 연습 끝났어요. 도시락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힘낼게요'란 감사 문자를 보냈다. 한 영양사는 이에 "급식 지원으로 나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수들이 '힘이 된다'는 문자 메시지에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패자' 조구함 매너에 日서도 극찬

승자가 아닌 패자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올림픽을 지켜본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유도의 조구함이 보여준 매너에 세계는 극찬을 보냈다. 조구함은 지난달 29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유도 남자 100kg 결승전에서 상대인 일본의 애런 울프와 연장전까지 간 끝에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그러나 조구함은 승자인 울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조구함은 유독 올림픽과 인연이 없어 불운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속상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 밝게 웃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상대가 강했다. 패배를 인정한다"며 "다시 일어나 챔피언 자리에 도전하겠다. 파리올림픽으로 향하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세계 랭킹 2위인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와 붙은 준결승전에선 왼손에 쥐가 난 폰세카를 위해 기다리거나, 왼손 대신 소매를 잡으며 배려했다. 조구함은 승리하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렸고, 폰세카는 조구함을 끌어안았다.

일본인들도 조구함의 매너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조구함과 울프의 시합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표본" "서로 존경을 표하는 훌륭한 올림픽" "이번 올림픽의 명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 선수의 매너까지 빛난 경기"라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줘 고맙다"는 축하 글을 올렸다.

태권도 이대훈 "승자 축하해 주는 게 선수의 도리"

패자가 승자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장면은 격투 종목에서 유독 많이 나왔다. 태권도에선 이대훈과 이다빈 모두 승자에게 엄지를 세웠다. 한국의 태권도 간판 이대훈은 지난달 25일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남자 6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의 자오샤이에게 패했다. 2012 런던올림픽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이대훈이 메달을 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이었다. 그러나 이대훈은 자오샤이에게 다가가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덩달아 그가 2016 리우올림픽 때 보여준 매너도 재조명됐다. 이대훈은 당시 68kg급 8강전에서 요르단의 아흐마드 아부가우시에게 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 아부가우시의 손을 번쩍 올렸다. 패자부활전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건 이대훈은 인터뷰에서 "승자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게 선수로서 해야 할 도리이자 예의"라며 자신이 승자를 축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다빈은 지난달 27일 같은 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전에서 세르비아의 밀리차 만디치에게 패해 은메달을 땀다. 이다빈은 패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만디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금메달감 매너를 선보였다. 만디치도 이다빈의 매너에 예의를 갖췄다.

펜싱 선수들이 보여준 매너도 눈길을 끌었다.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 이혜인으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달 27일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전에서 에스토니아에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경기 3라운드에감 보여준 송세라와 에스토니아의 에리카 키르푸의 매너는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키르푸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다리를 삐끗했는데, 송세라는 정비 시간을 주고자 공격을 멈추고 경기 중지를 요청했다.

키르푸도 매너로 송세라에게 진 빚을 갚았다. 송세라가 공격 도중 균형을 잃어 경기장 바깥쪽으로 몸이 기울자, 키르푸는 송세라를 붙잡으며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왔다.

한국 선수들 위로한 외국 선수들

외국 선수들도 멋진 매너로 도쿄올림픽을 빛냈다. 뉴질랜드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패했다.

그런데 뉴질랜드 대표팀은 오히려 '일본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들은 라커룸을 깨끗이 청소한 뒤 화이트보드에 "가시마와 일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일본에서 매우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일본과 일본 축구협회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로도 쓰며 올림픽 개최국에 예의를 표했다.

일본 대표팀의 나카야마 유타는 1일 인스타그램에 뉴질랜드 선수들이 남긴 화이트보드 메시지와 라커룸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일본에 온 외국 선수가 일본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

다음 장 계속

뉴질랜드 축구팀은 한국에도 멋진 매너를 보여줬다. 지난달 25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은 뉴질랜드에 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는 이동경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이동경이 우드의 손을 툭 치며 거부했다. 그러나 우드는 뉴질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동경이 (경기에 저) 실망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 전혀 걱정할 건 없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조심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동경을 위로했다.

'올림픽 보시래기즈' 중 한 명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19)은 중국 선수에게 스포츠 매너를 배웠다. 지난달 30일 도쿄 무사시노모리 스포츠 플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안세영은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천위페이에게 패하며 4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했다. 안세영은 온몸을 내던지는 투혼을 발휘했는데, 2게임 막판에 공을 받다가 발목을 접질렸다. 코트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워하자 천위페이는 바닥에 떨어진 라켓을 안세영의 손에 쥐여주며 괜찮은지 살폈다.

스포츠 정신 몸소 실천한 백전노장들

체력적 열세를 딛고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선수들도 있다. '보시래기즈'의 비약이 신유빈(17)에게 패한 룩셈부르크의 '탁구 할매' 니시아렌(58)이 주인공이다. 1991년 룩셈부르크 국적을 얻은 중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0 시드니올림픽부터 다섯 번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다. 올림픽 탁구 사상 역대 최고령인 백전노장으로 신유빈보다 마흔한 살이나 많다.

니시아렌은 지난달 25일 신유빈과 경기를 마친 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시합에 이길 수 있는 한 나는 이 자리에 설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마 마장마술에 출전한 1954년생인 호즈의 메리 해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몸소 보여줬다. 우리나라로 치면 칠순을 앞둔 나이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최고령으로, 도쿄까지 여섯 번의 올림픽 무대에 섰다. 그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상대방 조롱하고 더러운 뒷모습 보인 선수들도

스포츠 정신으로 올림픽을 화려하게 빛낸 선수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선수도 많았다. 자신의 경기가 끝났다면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호주 국가대표 선수 중 일부는 선수촌 방 벽에 구멍을 내거나 토사물을 남기고 떠났다고 전했다. 또 호주 럭비·축구 대표선수들은 귀국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기내 화장실에서 토한 뒤 치우지 않았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멕시코 소프트볼 대표팀은 선수촌을 떠나면서 유니폼과 운동화, 글러브를 버렸다. 멕시코의 한 복싱 선수가 지난달 29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들의 유니폼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비난이 쏟아지자 멕시코 소프트볼 대표팀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중국 선수와 중국 언론은 이번 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실망하게 했다. 지난달 27일 도쿄 무사시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복식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김소영-공희영 선수와 겨룬 중국의 천칭천-자이판 선수의 경기가 그랬다.

천칭천은 경기 도중, 경기가 끝난 뒤에도 '워차오(我操)'라고 크게 외쳤다. 기합소리인 줄 알았지만, 영어로 'F×××'에 해당하는 심한 중국어 욕을 한 것이다. 대만 누리꾼들은 천칭천이 워차오 외에도 어머니를 모욕하는 욕설을 했으며 "경기 내내 욕설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중국 언론은 김연경을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중국 매체들은 리우올림픽 배구 경기에서 김연경이 욕설을 한 걸 지적하며 "한국 사람들은 김연경이 욕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일본 서핑 선수인 이가라시 가노아는 자신과 붙었던 브라질의 가브리엘 메디나를 대놓고 조롱했다. 브라질 팬들이 이가라시의 승리에 흠 어드밴티지가 작용했다고 비판하자, 이가라시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떠들어라, 울어라 울어. 난 행복해. 하하하"라는 글을 남겼다. 또 브라질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비꼬는 글도 남겼다. 이가라시는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참을성이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그가 딛은 은메달의 빛은 퇴색된 뒤였다.



김연경부터 지소연까지... 스포츠의 판도를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운동, 그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 국가대표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다.

KBS 1TV '다큐 인사이트'는 오는 12일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에서 김연경, 김온아, 남현희, 박세리, 정유인, 지소연 등 여성 국가대표 6명이 한계를 극복해 온 과정을 담는다고 6일 밝혔다. '다큐인사이트'가 '다큐멘터리 개그우먼', '다큐멘터리 윤여정'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여성 아카이브 시리즈다.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은 2005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17년간 스포츠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남자배구의 인기로 가려져 텅 빈 경기장에서 시합을 벌이던 그는 모든 국민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에 주목하게 했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여자배구의 새 역사를 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 여자축구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해 명문 구단 첼시FC위민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지소연은 여자축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데 일조해왔다.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한국 최연소 A매치 데뷔, 최연소 A매치 득점, A매치 최다 골을 기록한 그는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세리는 선수 시절 한국을 골프 불모지에서 골프 강국으로 만들어냈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성별 상금 격차를 역전시켜냈다. 감독이 된 지금은 최초 올림픽 2회 연속 여성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으며, 남성 스포츠인에게 쏟던 예능의 무게 중심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에는 핸드볼계 에이스 김온아, 대한민국 최초 여자 펜싱 메달리스트 남현희, 근육질 몸의 당당함을 드러낸 수영선수 정유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담긴다.

KBS 1TV 12일 밤 10시 방송.

stopn@yna.co.kr

달랑 2명... 여성 아나운서 많아도 '스포츠 캐스터' 없는 이유

2명.

도쿄올림픽 중계에 투입된 지상파 3사 여성 캐스터 수다. <한국방송>(KBS)은 15명 가운데 1명(박지원 아나운서), <문화방송>(MBC)는 10명 가운데 1명(김초롱 아나운서)만이 여성이다. <에스비에스>(SBS)는 8명 모두 남성이다.

여성 캐스터 '실종'은 이번 올림픽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중계방송 325건을 분석했더니 여성 캐스터가 중계한 경기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해설자를 포함한 전체 중계진 성비도 여성 124명(24.8%), 남성 375명(75.2%)으로 남성이 3배 많았다.

스포츠 캐스터는 해설자와 함께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고, 선수나 상대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며, 카메라에 미처 잡히지 않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아나운서가 맡는데, 이들은 다년간 수차례 중계 경험을 쌓으며 스포츠 분야 전문성을 키운다.

국내 스포츠 캐스터 중 절대 다수는 남성이다. 여성 캐스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종목은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여성 아나운서 중 처음으로 피겨와 컬링 종목 캐스터로 나섰던 SBS 유영미 아나운서(정년퇴직),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리듬체조 중계를 맡았던 KBS 오정연 아나운서(현재 프리랜서)가 대표적이다.

여성 캐스터가 월드컵, 올림픽 같은 국제경기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을 맡은 경우는 드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사 아나운서는 "여성 아나운서도 캐스터를 원하면 말해달라는 분위기는 사내에 조성돼 있다. 다만 종목에 대한 구분은 있다. 예를 들면 축구·야구는 남성이, 리듬체조는 여성이 맡는 식이다. 전통적으로 나뉘어진 이런 종목 구분을 깨보려 하는 여성 아나운서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아나운서는 △남성 위주 스포츠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 △롤모델 부재를 여성 스포츠 캐스터 지원이 적은 이유로 꼽았다.

캐스터가 없을 뿐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 방송인이 활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상파 3사와 스포츠채널에는 여성 아나운서가 여럿 포진해 있다. 그러나 중계를 맡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전하거나, 경기장에서 선수 인터뷰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 방송 영역에서도 일종의 성별 업무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정화 전 스포츠 아나운서(건국대 체육학과 박사)는 2013년 전·현직 스포츠 아나운서 4명이 왜 스포츠 아나운서에 입문했고, 어떤 차별을 경험했는지 등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논문으로 썼다.

송 전 아나운와 논문에 등장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은 스포츠 중계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기회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했다.

“남성 아나운서는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야구장에 리포터로만 투입된다. 하지만 야구장 리포터로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여성 아나운서가 야구 중계 캐스터로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남성 스포츠 캐스터는 입사 1~2년차에 메인종목 캐스터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여성 캐스터는 6~7년차쯤 돼야 메인종목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메인종목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남성은 1~2시즌을 보고 지속가능성을 판단하지만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여성 스포츠 캐스터는 기회 면에서 차별이 분명히 있다.”

고용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키울만한 충분한 교육도,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기 계약직이 대부분인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는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 부분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는 여성 아나운서들도 많은 것 같다.”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으로 뽑는 방송가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MBC 전체 지역 계열사 16곳을 직권조사했는데,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의 82.9%가 정규직이었고,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비율은 25%에 그쳤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여성학 협동과정)은 “영국 오프콤(방송통신규제기관)은 매년 지상파 방송의 다양성 보고서를 낼 정도로 방송 다양성 확보를 중시한다. 이것이 우리 방송에서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사의 기존 캐스터 교육은 암묵적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남성 중심으로 전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김예리 서울 YWCA 여성운동국 부장은 “화자가 특별 성별에 집중되면, 그 성별이 지닌 가치 편견이 발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중계진의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디지만 외국은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미국 메이저리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탬파베이 레이스 경기 중계진(캐스터, 해설, 리포터 등) 5명 전원을 여성으로 꾸려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또 한번 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윤아(ah@hani.co.kr)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댓글 폐지 1년]벌금 80만원뿐... 이젠 그마저도<中>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49838>

[도쿄 결산]금메달 3개→21개, 5년 만에 확 벌어진 한-일 엘리트스포츠 격차, 이걸 홈어드밴티지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sports/tokyo2020/article/076/0003764679>

[도쿄올림픽]한국 스포츠 미래 밝힌 10대 스타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5614>

[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옥일기 형상 논란...김자인 "사과해야" (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86573>

[오늘과 내일/양종구]도쿄 올림픽과 스포츠 선진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74561>

문 대통령, 안산 선수 두 번째 위로 "스포츠, 어떤 이유로도 차별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1359>

[올림픽] 푸틴 "스포츠 정치화 시도 무의미...경기력으로 입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84071>

[김도균의 스포츠경제학] 2020 도쿄올림픽이 남긴 메달보다 중요한 성과

<https://m.sporbiz.co.kr/article/20210809570085>

이기흥 회장 "韓 스포츠 한 단계 성장한 모습 보여줬다" [도쿄올림픽]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39418>

목표 달성 실패·효자종목의 부진...그래도 한국스포츠 희망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2075>

"메달 수는 적었지만 스포츠 새 가치 확인한 대회" [도쿄 라이브]

<https://n.news.naver.com/sports/tokyo2020/article/144/000075435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